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 효과성 비교*

- K 대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at the Academic Library : a Case Study on K Academic Library

황 옥 경(Ok-Gyung Hwang)**

목 차

- | | |
|-----------------------------|----------------------------------|
| 1. 서 론 | 5. 주제별, 신분별 도서 대출 현황 |
| 2. 선행연구 | 5.1 조사대상도서의 대출 도서 비율 |
| 3. 연구내용 및 방법 | 5.2 조사대상도서의 대출 횟수 |
| 4. 선정 도서 현황 | 5.3 조사대상도서 중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의 대출 횟수 |
| 4.1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 현황 | 6. 결 론 |
| 4.2 주제분야별로 각 신분이 선정한 도서 현황 | |
| 4.3 각 신분별 선정 도서의 주제분야 구성 현황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K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 도서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단행본 수서 및 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7,717종(16,809권)을 조사 대상 도서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교수, 사서, 학생 3집단의 도서 선정 및 대출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비율이 전체의 약 7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학생, 교수의 순으로 도서 선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 신분별로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미대출 도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미대출 도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회 이상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생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each by faculty, librarians and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performed a case study on K Academic Library to compare the circulation rate of the books selected by each group. According to the book selection and circulation records of 7,717 titles(16,809 volumes) during the last 3 years, it was shown that about 76% of the books were selected by librarians. With regard to the rate of books with more than 1 time circulation record, books selected by librarians showed the highest with about 85%. With regard to the circulation rate of books with circulation record, books selected by students showed the highest.

키워드: 도서 선정, 대출 비율, 도서 선정의 효과성, 사서, 교수진, 학생, 대학도서관
Book Selection, Circulation Rat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Librarians, Faculty, Students, Academic Library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hmirim@sw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14일

1. 서론

현재 대다수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은 크게 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수진에 의한 도서 선정, 둘째,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 셋째, 학생에 의한 도서 선정이다. 교수진이나 학생에 의한 도서 선정이란 이들에 의해 희망도서로 신청된 후 입수되었음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수와 학생에 의해 신청된 도서인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수서 대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각 대학도서관 고유의 장서개발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수나 학생에 의해 신청된 도서는 거의 대부분 수서로 연결된다. 이용자 요구에 따른 도서 선정은 이용의 활성화라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실제로 교수나 학생에 의한 도서 선정이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보다 더욱 효과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도서 선정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있다. 첫째,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이며 둘째, 그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도서 선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선정된 도서의 질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도서 선정이 해당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도서 이용률, 즉 관외대출 비율이 이러한 평가의 한 가지 척도가 될 수 있다. 교수에 의해 선정된 도서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과 연구자를 위한 연구용간에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도서 선정의 과정과 관련한 평가에는 도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측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교수집단이나 학생집단 전체 구성원 중에서 실제 도서 선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비율이나, 주제분야별 구성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서 선정의 평가는 도서 선정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욱 바람직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도서 선정의 결과나 과정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서 선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수, 사서, 학생의 세 집단에 의해 선정된 단행본 도서의 대출 비율을 조사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은 관례적으로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교수진에 의존해 온 이유는 첫째, 교수들의 주제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제한된 인원수의 수서담당사서만으로 모든 교수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Fonta(1998; Soward, 2002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통제권이 교수진으로부터 사서에게로 이양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다. 이러한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은 주로 주제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서 선정이 사서에게 이양되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Sandl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이 여전히 교수들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진에 의한 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Massman and Olson(1971)은 교수진의 도서 선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시간부족, 무경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Hardesty(1986)는 주로 소규모 도서관에서 교수진에 의한 도서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교수진은 장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 선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역사 분야 도서의 대출 현황을 조사해 본 Millson-Matula(1985)의 연구에서는 교수에 의해 선정된 도서가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보다 대출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Vidor and Futas(1988)의 연구에서는 교수진과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 평가를 위해 대출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주제 영역에서는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명확하게 어느 한 쪽의 도서 선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이렇게 교수의 도서 선정 참여를 둘러싸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참여는 하되”라는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Neville et al, 1998). Biggs(1981)에 따르면 도서관이 교수들의 도서 선정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너무 편협된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교수의 도서 선정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Hurt et al. 1995; Yang 1991). 한편 “참여는 하되”라는 의견에서는 교수들의 도서 선정 과정에 사서의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andler 1984).

이러한 논의 속에서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이 점차 사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사서의 주제 전문성 부족과 자원의 부족이었다(Fonta 1998; Soward, 2002에서 재인용). 특히 자원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가 교과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구 목적만을 위해 도서를 선정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Miller(1979)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있어 교수의 연구 목적과 학생의 학습 목적 간에는 일종의 대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도서 선정 과정에 대한 평가 연구로서 Sowards(200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선정에 있어 교수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 대학의 5개 인문대학 교수 46명을 대상으로 과거 3년간의 도서 선정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부 교수만이 도서 선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수의 교수에 의한 도서 선정이 교수 선정 도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이 매우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서의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선정에 대한 교수진의 의무감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Jenkins(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수진은 도서 선정보

다는 해당 주제분야에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교내 행정 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이나 교내외에서의 자문과 같은 일은 도서 선정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K 대학도서관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뒤 지난 3년간(2003.03.01~2006.02.28) 동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단행본 도서의 입수 및 대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대출 비율의 비교를 통한 도서 선정 결과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데이터 추출 시에는 대출 가능 도서만을 조사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추출된 데이터 중 시간강사 및 학과에 의해 선정된 일부 도서(총 106권)를 제외하고 교수, 사서, 학생의 3 집단에 의해 선정된 도서만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 도서는 7,717종, 16,809권이었다.

넷째, SPSS 12.0을 이용하여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 현황과 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례 도서관인 K 대학도서관(이후 사례 도서관)의 장서 구성상의 특징,

그리고 사례 도서관의 모기관인 K 대학교(이후 사례 대학교)의 소속 교수 및 학생의 희망 도서 신청 경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대학도서관 전체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4. 선정 도서 현황

사례 대학교는 6개 대학 28학과에 약 7,200명 정도의 학부 재학생을 두고 있고 6개 대학원에 1,200명 정도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 대학교이다. 사례 도서관은 2006년 12월 말 현재 약 54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 도서관에서의 도서 선정 현황을 주제별, 신분별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 현황

사례 도서관에서의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각 %는 전체 조사대상 도서 7,717종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주제분야는 현재 사례 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듀이십진분류표(DDC)에 따라 구분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 종수는 5,883종으로서 전체 7,717종의 76.23%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수에 의해 선정된 종수는 615종으로 7.97%라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학생에 의해 선정된 종수는 1,210종으로 15.8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 현황

주제분야	신분	교수		사서		학생		전체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총 류 (000)		121	1.57	741	9.60	195	2.53	1,057	13.70
철 학 (100)		20	0.26	409	5.30	32	0.41	461	5.97
종 교 (200)		2	0.03	81	1.05	15	0.19	98	1.27
사회과학 (300)		93	1.21	1,146	14.85	168	2.18	1,407	18.23
어 학 (400)		39	0.51	312	4.04	62	0.80	413	5.35
순수과학 (500)		75	0.97	237	3.07	110	1.43	422	5.47
기술과학 (600)		164	2.13	863	11.18	270	3.50	1,297	16.81
예 술 (700)		28	0.36	344	4.46	152	1.97	524	6.79
문 학 (800)		71	0.92	1,370	17.75	171	2.22	1,612	20.89
역 사 (900)		2	0.03	380	4.92	44	0.57	426	5.52
합 계		615	7.97	5,883	76.23	1,219	15.80	7,717	100.00

각 신분별로 선정된 도서가 전체 조사대상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교수:사서:학생의 비율이 약 1: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text{교수} : \text{사서} : \text{학생} \\ &= 7.97 : 76.23 : 15.80 \\ &\approx 1 : 10 : 2 \end{aligned}$$

전체 조사대상도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제분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20.89%) > 사회과학(18.23%) > 기술과학(16.81%) > 총류(1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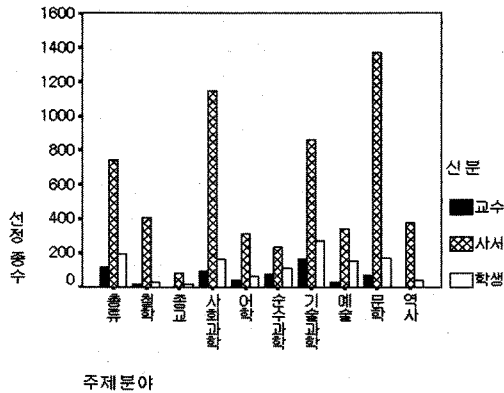
이들 4개 주제분야의 도서가 전체 10개 주제분야 도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대상 도서 중 가장 낮은 선정 비율을 보인 주제분야는 종교로서 전체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 분야의 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사례 대학교에 종교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철학, 어학, 순수과학, 역사 등의 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이유 역시 사례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관련 학과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 도서의 주제별, 신분별 선정 현황을 차트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4.2 주제분야별로 각 신분이 선정한 도서 현황

주제분야별로 각 신분이 선정한 도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분별 선정 비율에서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주제분야는 역사이다. 이 경우 교수에 의한 선정 비율은 0.47%이고 사서에 의한 선정 비율은 89.20%로서 거의 19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가장 차이가 작게 나타나는 주제분야는 순수과학이다. 이때의 교수집단에 의한 도서 선정 비율은 17.77%로서 전체 주제분야 중 교수에 의한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제분야이기도 하다. 교수에 의한 선정 비율이



<그림 1> 조사대상도서의 주제별, 신분별 선정 현황

<표 2> 주제분야별 각 신분의 선정 도서 종수 비율

주제분야	신분		교수		사서		학생		전체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총 류 (000)	121	11.45	741	70.10	195	18.45	1,057	100.00		
철 학 (100)	20	4.34	409	88.72	32	6.94	461	100.00		
종 교 (200)	2	2.04	81	82.65	15	15.31	98	100.00		
사회과학 (300)	93	6.61	1,146	81.45	168	11.94	1,407	100.00		
어 학 (400)	39	9.44	312	75.54	62	15.01	413	100.00		
순수과학 (500)	75	17.77	237	56.16	110	26.07	422	100.00		
기술과학 (600)	164	12.64	863	66.54	270	20.82	1,297	100.00		
예 술 (700)	28	5.34	344	65.65	152	29.01	524	100.00		
문 학 (800)	71	4.40	1,370	84.99	171	10.61	1,612	100.00		
역 사 (900)	2	0.47	380	89.20	44	10.33	426	100.00		
합 계	615	7.97	5,883	76.23	1,219	15.80	7,717	100.00		

두 번째로 높은 주제분야는 기술과학(12.64%)이다. 학생의 경우 도서 선정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제분야는 예술(29.01%)과 순수과학(26.07%), 기술과학(2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학생의 경우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의 도서 선정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4.3 각 신분별 선정 도서의 주제분야 구성 현황

각 신분별 선정 도서의 주제분야 구성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신분별로 도서 선정 비율이 높은 주제분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교수: 기술과학(26.67%) > 총류(19.67%) > 사회과학(15.12%) > 순수과학(12.20%)
- 사서: 문학(23.29%) > 사회과학(19.48%) > 기술과학(14.67%) > 총류(12.60%)
- 학생: 기술과학(22.15%) > 총류(16.00%) > 문학(14.03%) > 사회과학(13.78%)

〈표 3〉 각 신분별 선정 도서의 주제분야 구성 비율

주제분야	신분		교수		사서		학생		전체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종수	%
총 류 (000)	121	19.67	741	12.60	195	16.00	1,057	13.70		
철 학 (100)	20	3.25	409	6.95	32	2.63	461	5.97		
종 교 (200)	2	0.33	81	1.38	15	1.23	98	1.27		
사회과학 (300)	93	15.12	1,146	19.48	168	13.78	1,407	18.23		
어 학 (400)	39	6.34	312	5.30	62	5.09	413	5.35		
순수과학 (500)	75	12.20	237	4.03	110	9.02	422	5.47		
기술과학 (600)	164	26.67	863	14.67	270	22.15	1,297	16.81		
예 술 (700)	28	4.55	344	5.85	152	12.47	524	6.79		
문 학 (800)	71	11.54	1,370	23.29	171	14.03	1,612	20.89		
역 사 (900)	2	0.33	380	6.46	44	3.61	426	5.52		
합 계	615	100.00	5,883	100.00	1,219	100.00	7,717	100.00		

교수집단과 학생집단의 경우 기술과학과 총류의 도서 선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사회과학 역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수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주제분야는 기술과학(26.67%)이며 총류(19.67%)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종교와 역사는 각각 단 2종의 도서만이 교수에 의해 선정되어 0.33%의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종교와 역사 분야의 도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례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서의 경우에는 문학(23.2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종교(1.38%)가 교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주제분야는 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과학(22.15%)이며 종교(1.27%)가 교수 및 사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5. 주제별, 신분별 도서 대출 현황

5.1 조사대상도서의 대출 도서 비율

조사대상도서 중 대출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주제별, 신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러한 대출도서의 비율은 주제별, 신분별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도서 중 78.826%에 해당하는 도서가 지난 3년간 적어도 1회 이상 대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7,717종의 도서 중 21.173%에 해당하는 1,634종의 도서가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대출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주제분야별로는 문학류의 도서가 평균 84.553%로 가장 높은 대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수과학 도서가 65.1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분별로는 사서집단이 선정한 도서의 대출비율이 84.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집단이 70.6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

〈표 4〉 조사대상도서의 주제별, 신분별 대출 도서 현황

주제 분류	신분	종수	권수	대출도서종수	대출도서비율*
총류 (000)	교수	121	126	47	38.843
	사서	741	1,703	682	92.038
	학생	253	289	195	77.075
	전체	1,057	2,118	866	81.930
철학 (100)	교수	20	29	9	45.000
	사서	409	962	345	84.352
	학생	32	61	30	93.750
	전체	461	1,052	384	83.297
종교 (200)	교수	2	3	2	100.000
	사서	81	191	65	80.247
	학생	15	37	14	93.333
	전체	98	231	81	82.653
사회과학 (300)	교수	93	116	23	24.731
	사서	1,146	2,566	908	79.232
	학생	168	271	120	71.429
	전체	1,407	2,953	1,051	74.698
어학 (400)	교수	39	40	13	33.333
	사서	312	727	266	85.256
	학생	62	129	49	79.032
	전체	413	896	328	79.419
순수과학 (500)	교수	75	91	32	42.667
	사서	237	545	208	87.764
	학생	110	126	35	31.818
	전체	422	762	275	65.166
기술과학 (600)	교수	164	187	77	46.951
	사서	863	1,900	721	83.546
	학생	270	372	150	55.556
	전체	1,297	2,459	948	73.092
예술 (700)	교수	28	30	15	53.571
	사서	344	770	296	86.047
	학생	152	233	120	78.947
	전체	524	1,033	431	82.252
문학 (800)	교수	71	74	24	33.803
	사서	1,370	3,725	1,173	85.620
	학생	171	480	166	97.076
	전체	1,612	4,279	1,363	84.553
역사 (900)	교수	2	3	1	50.000
	사서	380	930	315	82.895
	학생	44	91	40	90.909
	전체	426	1,024	356	83.568
합계	교수	615	699	243	39.512
	사서	5,883	14,019	4,979	84.634
	학생	1,219	2,091	861	70.632
	전체	7,717	16,809	6,083	78.826

* 대출도서비율 = 대출도서종수 / 종수 × 100

율을 보였고, 교수집단이 39.5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문학과 역사 분야에서 학생집단이 선정한 도서는 각각 97.076%와 90.909%로 매우 높은 대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분별 선정 도서의 대출 도서 비율 및 미대출 도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수 : 사서 : 학생의 대출도서 비율

$$= 39.512 : 84.634 : 70.632$$

교수 : 사서 : 학생의 미대출도서 비율

$$= 60.498 : 15.366 : 29.368$$

$$\approx 4 : 1 : 2$$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와 사서, 학생간의 도서 선정 효과성을 전체 대상 도서 중 대출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평가하면 교수집단의 도서 선정 효과성이 가장 낮고 사서의 도서 선정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2 조사대상도서의 대출 횟수

주제별, 신분별로 선정된 도서의 대출 횟수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도서관의 경우 도서의 종별 평균 복본수는 2.178권이며 복본수가 가장 많은 주제분야는 문학으로서 평균 2.654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도서관의 경우 문학류의 도서는 2권까지만 허용하는 정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균 복본수가 2.654권으로 나타난 것은 2권 이상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전체 도서의 종별 평균 대출횟수는 12,883

회로서 이는 종별로 연간 4,294회의 대출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이 중 문학 분야가 평균 26,846회라는 가장 높은 대출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총류의 도서가 14,858회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학 분야의 경우 학생집단이 선정한 도서인 경우에는 거의 66,088회의 대출 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사서에 의해 선정된 도서인 경우에도 평균 23,309회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 분야의 경우 1종이 2권 이상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종별 대출횟수에 이어 권당 대출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사서에 의해 선정된 문학류 도서는 평균 4,859회, 학생에 의해 선정된 도서는 평균 14,325회로 여전히 다른 주제분야에 비해 높은 대출비율을 보이긴 하나 다른 주제분야와의 편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수에 의해 선정된 문학 분야 도서의 경우에는 권당 평균 0.568회라는 매우 저조한 대출횟수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도서 전체의 권당 평균 대출 횟수는 4,43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 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학생이 선정한 도서가 5,44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서 4,576회, 교수 1,105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교수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경우 3년간 1번 정도의 대출로 그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과 연계된 도서 선정이기보다 교수 개인의 연구 목적을 위한 도서 선정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제별로 비교해 보면 총류가 6,44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학류가 5,674회, 어학이 5,273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제분야별

〈표 5〉 조사대상도서의 대출 횟수

주제분류	신분	종수(A)	권수(B)	종별평균 복본수(B/A)	종별평균 대출횟수	권당평균 대출횟수
총류 (000)	교수	121	126	1.041	1.107	0.938
	사서	741	1,703	2.298	18.418	7.650
	학생	253	289	1.492	9.862	5.261
	전체	1,057	2,118	2.006	14.858	6.441
철학 (100)	교수	20	29	1.450	1.750	0.900
	사서	409	962	2.352	6.181	2.627
	학생	32	61	1.906	13.031	6.766
	전체	461	1,052	2.282	6.464	2.839
종교 (200)	교수	2	3	1.500	2.500	2.250
	사서	81	191	2.358	4.988	2.033
	학생	15	37	2.467	20.467	7.322
	전체	98	231	2.357	7.306	2.847
사회과학 (300)	교수	93	116	1.247	0.581	0.371
	사서	1,146	2,566	2.239	7.135	3.194
	학생	168	271	1.613	7.036	3.836
	전체	1,407	2,953	2.099	6.690	3.084
어학 (400)	교수	39	40	1.026	0.718	0.513
	사서	312	727	2.330	13.978	6.044
	학생	62	129	2.081	9.065	4.383
	전체	413	896	2.169	11.988	5.273
순수과학 (500)	교수	75	91	1.213	2.587	1.751
	사서	237	545	2.300	14.253	5.954
	학생	110	126	1.145	1.500	1.186
	전체	422	762	1.806	8.855	3.964
기술과학 (600)	교수	164	187	1.140	1.543	1.355
	사서	863	1,900	2.202	9.867	4.479
	학생	270	372	1.378	6.096	3.249
	전체	1,297	2,459	1.896	8.029	3.828
예술 (700)	교수	28	30	1.071	3.964	3.357
	사서	344	770	2.238	8.782	3.750
	학생	152	233	1.533	7.928	4.277
	전체	524	1,033	1.971	8.277	3.881
문학 (800)	교수	71	74	1.042	0.577	0.568
	사서	1,370	3,725	2.719	23.309	4.859
	학생	171	480	2.807	66.088	14.325
	전체	1,612	4,279	2.654	26.846	5.674
역사 (900)	교수	2	3	1.500	0.500	0.500
	사서	380	930	2.447	8.342	3.275
	학생	44	91	2.068	16.250	6.043
	전체	426	1,024	2.404	9.122	3.548
합계	교수	615	699	1.137	1.392	1.105
	사서	5,883	14,019	2.383	13.452	4.576
	학생	1,219	2,091	1.715	15.934	5.448
	전체	7,717	16,809	2.178	12.883	4.437

〈표 6〉 조사대상도서 중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의 대출 횟수

주제분류	신분	대출도서종수 (A)	대출도서권수 (B)	대출도서평균 복본수(B/A)	대출도서 종별평균 대출횟수(C)	대출도서 권당평균 대출횟수(D)*
총류 (000)	교수	47	50	1.064	2.851	2.415
	사서	682	1,574	2.308	20.012	8.311
	학생	195	225	1.642	14.036	7.488
	전체	866	1,849	2.135	18.135	7.861
철학 (100)	교수	9	17	1.889	3.889	2.000
	사서	345	797	2.310	7.328	3.114
	학생	30	57	1.900	13.900	7.217
	전체	384	871	2.268	7.760	3.409
종교 (200)	교수	2	3	1.500	2.500	2.250
	사서	65	156	2.400	6.215	2.533
	학생	14	35	2.500	21.929	7.845
	전체	81	194	2.395	8.840	3.444
사회과학 (300)	교수	23	38	1.652	2.348	1.500
	사서	908	2,053	2.261	9.006	4.032
	학생	120	216	1.800	9.850	5.371
	전체	1,051	2,307	2.195	8.956	4.129
어학 (400)	교수	13	14	1.077	2.154	1.538
	사서	266	619	2.327	16.395	7.090
	학생	49	103	2.102	11.469	5.545
	전체	328	736	2.244	15.095	6.639
순수과학 (500)	교수	32	48	1.500	6.062	4.104
	사서	208	482	2.317	16.240	6.784
	학생	35	41	1.171	4.714	3.729
	전체	275	571	2.076	13.589	6.083
기술과학 (600)	교수	77	96	1.247	3.286	2.885
	사서	721	1,601	2.221	11.810	5.361
	학생	150	245	1.633	10.973	5.848
	전체	948	1,942	2.049	10.985	5.237
예술 (700)	교수	15	16	1.067	7.400	6.267
	사서	296	672	2.270	10.206	4.358
	학생	120	198	1.650	10.042	5.417
	전체	431	886	2.056	10.063	4.719
문학 (800)	교수	24	26	1.083	1.708	1.680
	사서	1,173	3,262	2.781	27.224	5.675
	학생	166	472	2.843	68.078	14.756
	전체	1,363	3,760	2.759	31.751	6.711
역사 (900)	교수	1	1	1.000	1.000	1.000
	사서	315	774	2.457	10.063	3.951
	학생	40	86	2.150	17.875	6.648
	전체	356	861	2.419	10.916	4.246
합계	교수	243	309	1.272	3.523	2.796
	사서	4,979	11,990	2.408	15.894	5.407
	학생	861	1,678	1.949	22.559	7.714
	전체	6,083	13,977	2.298	16.343	5.629

로 각 신분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권당대출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교수의 경우 종교 주제분야의 도서가 두 번째로 높은 순서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 3권에 대한 분석이므로 이를 두고 권당대출비율이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교수: 예술(3,357회) > 종교(2,250회) > 순수과학(1,751회) > 기술과학(1,355회)
 사서: 총류(7,650회) > 어학(6,044회) > 순수과학(5,954회) > 문학(4,859회)
 학생: 문학(14,325회) > 종교(7,322회) > 철학(6,766회) > 역사(6,043회)

5.3 조사대상도서 중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의 대출 횟수

앞서 5.2절에서는 조사대상도서 전체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도서 중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만을 대상으로 대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만을 대상으로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경우의 권당 평균 대출횟수(5,629회)가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분석했던 경우(4,437회) 보다 거의 27%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분야별로 살펴보면 총류가 7,861회, 문학이 6,711회, 어학이 6,639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신분별 선정 도서 중 대출이력이 있는 도서 중 권당대출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 예술(6,267회) > 순수과학(4,104회) > 기술과학(2,885회) > 철학(2,000회)
 사서: 총류(8,311회) > 어학(7,090회) > 순수과학(6,784회) > 문학(5,675회)
 학생: 문학(14,756회) > 종교(7,845회) > 총류(7,488회) > 철학(7,217회)

교수가 선정한 순수과학 분야 도서와 학생이 선정한 총류 도서 등은 전체 도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당대출비율에서는 높은 순위에 들지 못했으나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 앞서 대출 도서 비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미대출 도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분야들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 비율 산정에 있어 대출 도서만으로 제한할 경우 대출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K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교수, 사서, 학생 집단을 통해 선정된 도서간의 대출 비율 비교를 통해 도서 선정의 주체에 따른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신분별 도서 선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 비율이 약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에 의해 약 16%, 그리고 나머지 8%만이 교수에 의해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주제분야의 도서를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서 담당 인

원이 충분하지 못한 국내 대학도서관 현실을 감안한다면 각 주제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교수집단이 도서 선정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주제분야별로 도서 선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서에 의한 도서 선정은 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수 및 학생은 기술과학과 총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셋째, 신분별 선정 도서 중 대출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교수집단의 도서 선정 효과성이 가장 낮고 사서의 도서 선정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집단에 의해 선정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낮은 것은 이들 도서가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도서이기보다는 교수 개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선정된 도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수 개인의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도서 선정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모색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수들이 도서 선정 시에 참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서 선정 기준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도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 각 신분별 선정 도서의 권당 평균 대출 횟수를 통해 도서 선정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학생집단에 의해 선정된 도서가 5.44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서 4.576회, 교수 1.105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총류가 6.441회, 문학이 5.674회, 어학이 5.273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각 신분별 선정 도서 중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만을 대상으로 권당 평균 대출 횟수를 조사한 결과 5.629회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총류가 7.861회, 문학이 6.711회, 어학이 6.639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Biggs, Mary. 1981. "Sources of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Librarians and Facult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2): 182-201.
- Fonfa, R. 1998. "From faculty to librarian materials selection: An element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librarianship." In T.F. Mech and G.B. McCabe(Eds.), *Leadership and Academic Librarians*. Westport, Conn.: Greenwood. Quoted in Sowards, Steven. 2002. "Rates of Participation by Faculty Book Selectors in a College Library." [cited 2006.12.2]. <<http://www.mlaforum.org/volume1/issue1/rates.html>>
- Hardesty, L. 1986. "Book selection for undergraduate libraries: A study of faculty attitud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

- anship*, 12(1): 19-25.
- Hurt, Charlene S., Laura O. Rein, Maureen S. Connors, John C. Walsh, and Anna C. Wu. 1995.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a University Center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6(6): 487-495.
- Jenkins, Paul O., 1996. "Faculty priorities: where does material selection stand?" *Collection Building*, 15(1): 19-20.
- Massman, V.F. and Olson, D.R. 1971. "Book selection: A national plan for small academ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2(4): 271-279.
- Miller, W. and D. Stephen Rockwood. 1979. "Collection development from a college perspectiv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0(4): 318-324.
- Millson-Matula, C. 1985. "The effectiveness of book selection agents in a small academic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6(6): 504-510.
- Neville, Robert, James Williams III, and Caroline C. Hunt. 1998. "Faculty-Library Teamwork in Book Orderin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9(6): 523-532.
- Sandler, M. 1984. "Organizing effective faculty participation in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6(3): 63-73.
- Sowards, Steven. 2002. "Rates of Participation by Faculty Book Selectors in a College Library." [cited 2006.12.2]. <<http://www.mlaforum.org/volume1/issue1/rates.html>>
- Vidor, David L. and Elizabeth Futas. 1988. "Effective Collection Developers: Librarians or Faculty?"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2(2): 127-136.
- Yang, Eveline L. 1991. "Psychology Collection Review: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Librarians and Departmental Faculty Members." *Collection Management*, 13(3): 43-55.